

한 달에 한 편씩 시 외우는 '시암송 국민운동본부' 광주서 발족

삭막한 세상, 시는 희망입니다

‘희망찬 사람은/그 사람이 희망이다/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참 좋은 사람은/그 자체로 이미 좋은 세상이다/사람 속에 들어 있다/사람에서 시작된다/다시/사람만이 희망이다(박노해 <다시>)

매월 한편의 시를 외우는 시암송 국민운동본부(이하 시암송 본부) 회원들은 박노해의 시 <다시>와 ‘희망찬 단애 얼마예요?’라는 글귀가 인상적인 김강태의 시 ‘ 돌아오는 길 ’ 가운데 한편을 암송하며 새해를 열었다.

광주의 문화공간 드림아트홀을 꾸러가고 있는 이들이 소박하게 시작한 ‘시암송본부’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히 덥혀 주고 있다. 시암송 본부는 패션디자이너 문광자(62)씨가 이사장을 맡고 문길섭(54·드림아트홀 관장), 동시 시인 김민하(드림문화교실 간사)씨가 실무를 맡아 지난해 9월 발족한 모임.



한달에 한편씩 시를 외우는 시암송국민운동본부의 문광자, 문길섭, 김민하(사진 오른쪽부터)씨가 시인 200여명의 사진이 걸려 있는 드림아트홀 1층에서 포즈를 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사장 문광자씨, 문길섭·김민하씨 실무 매달 2편의 시 골라 회원에 ‘시엽서’ 발송

아름다운 시 세계에 푹 빠져 있다.

10여년 전 처음 정지용의 시 ‘향수’를 외우기 시작한 문광장은 지금까지 650여편의 시를 암송했고 김 간사 역시 김춘수의 ‘꽃’을 시작으로, 400여편의 시를 외우고 있다.

“시를 외우면서 좋은 시를 만날 때마다 좀 더 많은 사람과 이 행복 한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 싶었어요. 한달에 한편 정도 외우면 별 부담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문광장은 회원들이 혹시 부담감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회비

도 책정하지 않았고 정기 모임도 갖지 않는다. 메일(joywriting@hanmail.net)이나 전화(062-651-4117)로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시엽서’를 보내준다.

“시를 외우면 마음이 씻겨지는 느낌을 받아요. 별다른 취미가 없으신 어머니께 권해드렸는데 버스를 기다리시며 시를 외우는 등 시와 접하고 나서 행복해 하시고 새로운 즐거움을 얻으시는 걸 보고 시를 외우는 게 참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했어요.”

김 간사는 철순이 낳은 어머니가 50여편의 시를 암송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틈 날 때마다 동시를 외우는 모습이 참 예쁘다고 말했다.

회원 고병희씨는 “설겅이 하면서, 잠들기 전에 외우고 또 외우고- 이젠 모임에 가서도 노래 대신 시를 읊는다”며 나이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시를 외울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문 이사장은 “거친 말소리와 TV 등에서 쏟아지는 뜻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 때문에 우리 언어 생활이 엉망인 걸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암송할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우리의 역할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눈속의 매화를 찾아

위진수전 내달 6일까지 갤러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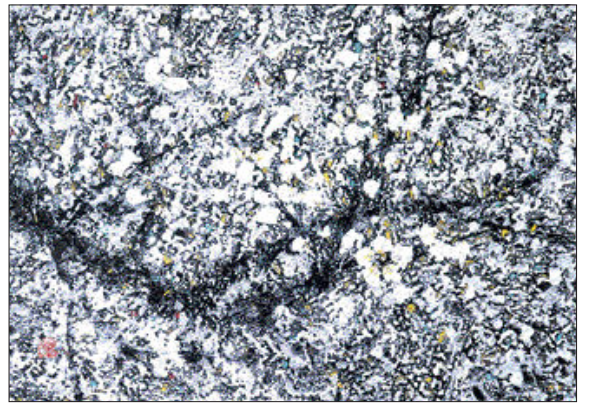
매화는 신산(辛酸)의 계절에 피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 옛 선비들은 매화 가운데서도 한 겨울 눈바람을 이기고 꽃을 피운 설중매(雪中梅)를 으뜸으로 쳤다.

한국화가 위진수씨가 ‘설중매심(雪中梅尋·눈 속에서 매화를 찾다)’을 주제로 한겨울 매화의 절개와 은은한 향기를 화폭에 담았다.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수.

위씨가 화폭에 담은 매화는 한결 같이 눈보라가 쏟아지는 별관에서 추위를 의연하게 견뎌내고 있다. 그의 캔버스에서는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기도 하고, 때론 눈과 매화를 분간할 수 없는 윈시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다.

대작 ‘설중매심’은 화강암 같은 거친 질감을 극대화한 여백과 화사한 매화 화폭에 어우러져 매화향기를 한층 그윽하게 담아내고 있다.

석불과 석탑 등 전통소재를 천착해온 그가 매화를 고집하게 된 때는 지난 2004년. 깊은 향기와 고결한 모습에 이



‘설중매심(雪中梅尋)’

끌리면서 지금까지 매화를 고집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특선했으며 대한민국청년미술제, 광주청년 작가회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현재 성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의 02-733-5454.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 러시아 자수공예展

내달 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정 러시아씨가 울(wool)을 이용한 수공예 작품들을 다음달 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갖는다.

호주에서 살고 있는 정씨는 현지에서 생산된 울을 이용한 자수와 뜨개질 등 수공예와 양모를 접목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목장’, ‘라벤다 언덕’, ‘행복한 나들이’ 등의 작품은 서정적인 전원생활을 아름답게 수놓은 자수 공예품이다. 광주교육대학 미술과를 졸업한 뒤 교사생활을 거쳐 지



‘목장’

난 1990년 호주에 정착, 수공예와 현대미술을 접목하는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개그야(夜) 광주를 웃긴다

2월 3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김기사 운전해 ~ 어서~’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KBS ‘개그콘서트’,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방송사 개그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MBC ‘개그야(夜)’팀이 광주에서 첫 공연을 갖는다. 2월 3일 오후 4시,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무대에서는 여수 출신 김미려와 김철민이 호흡을 맞춘 ‘개그야’의 간판 ‘사모님’을 비롯, 무명 개그맨 정승호를 스타덤에 오르게 해준 ‘주연아’, ‘명품남녀’ ‘라이벌 뉴스’ 등 ‘개그야’의 다양한 코너를 직접 만날 수 있다. 5만5천원, 4만5천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이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We sincerely congratulate your succes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박내영교육특' and '박내영고시학원' with phone number 529-0090.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featuring various hiking routes and information. It includes a list of hiking spots and details about the service.

Advertisement for '대도(浦道)예매 수장생 모듬' (Dae-do (Podo) Pre-sale Storage Life Assortmen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about the product, including a price of 38,900 and a '등불!' (Lamp) promotion.